

진안홍삼 유럽 진출 교두보 마련

군, 오스트리아 비엔나서 열린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참가해 유럽 국가들 관심 모아

국내 유일의 홍삼 특구인 진안군이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발판을 다졌다.

지난달 31일 군에 따르면 재외동포 최대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 (월드유타, 회장 박종범) 주관으로 오스트리아 센터 빈에서 열린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박람회에 전춘성 진안군수, 김정배 (쑤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장 등 대표단이 참가해 진안홍삼 수출 바이어 상담 등 진안홍삼 홍보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진안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한국체육대학교 산학기업인 (쑤산소존(대표 강광배)이 진안홍삼을 활용해 만든 농축액 제품인 '프리미엄 홍삼 스포린터'의 런칭이 이번 행사에서 진행됐기 때문이다.

앞서 진안군은 진안홍삼 발전을 위해 지난 2021년 한국체육대학교와 협약을 맺었고, 이를 기반으로 진안홍삼 유통·홍보·마케팅 기관인 (쑤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이 한국체육대학교 산학기업인 (쑤산소존(대표 강광배)에 진안홍삼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협약 을 올해 9월 체결한 이후 그 결과물이 첫 선을 보인 것이다.

또한 이를 오스트리아 봅슬레이 스피드 국가대표 팀에 지원하는 후원 행사도 함께 열려 유럽에서도 진안홍삼을 활용한 제품을 맛볼 수 있게 된 의미가 있는 첫 걸음에 동참한 것이기도



진안군은 재외동포 최대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 주관으로 오스트리아 센터 빈에서 열린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박람회에 전춘성 진안군수, 김정배 (쑤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장 등 대표단이 참가해 진안홍삼 수출 바이어 상담 등 진안홍삼 홍보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하다.

전춘성 진안군수로부터 제품을 전해 받은 오스트리아 봅슬레이 스피드 국가대표 감독 볼프강 슈탈퍼 씨는 "진안홍삼이 주는 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바이어 상담에서도 독일, 프랑스, 헝가리,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의 해외 바이어들에게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관련 상담이 쇄도하고 있어 유럽에서의 진안홍삼의 위상을 한층 높인 것으로 평가됐다.

진안군은 앞으로 (쑤산소존과의 협업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 진안홍삼의 인지도를 쌓아간다는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서 K-푸드 대표 상품으로 진안홍삼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현장을 목격했다"며 "진안홍삼이 프리미엄 인·홍삼으로 발전하여 관내 가공업체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외 시장 개척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은 지난날 30일 산서면 능곡마을에서 '비단골 다운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장수 '비단골 다운센터' 준공

산서면 능곡마을만들기 사업 일환 추진... 주민 활동 공간 재 정비

장수군은 지난날 30일 산서면 능곡 마을에서 '비단골 다운센터' 준공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준공식은 최훈식 군수, 박용근 도의원, 한국희 군의원 등 내외 귀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사업 경과보고를 비롯해 감사패 수여식, 환영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에는 내외 귀빈 등 참석자가 시설물을 시찰하는 시간도 가졌다.

비단골 다운센터는 2층 연면적 85.02㎡(26평) 규모로 신축되었으며 지난 4월 착공해 10월 공사가 완료됐다. 1층 황토찜질방과 다용도실 2층 사랑방, 테라스 등 시설이 갖춰져 있어 능곡마을 주민들을 위한 주민활동 공간으로 재정비돼 자치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산서면 능곡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

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능곡마을 주민의 복지서비스 공간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지역 역량강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군은 지난 2023년 사업 선정 이후 올해까지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완료했다.

양석신 능곡마을 이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비단골 다운센터 공사에 도움을 주신 최훈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은 물론 친목과 결속을 다질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최훈식 군수는 "비단골 다운센터는 주민 모두의 노력과 열정이 담긴 값진 결과물이다"며 "주민들이 화합하고 함께 번영해 행복한 능곡마을이 되기를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도시재생사업 평가 '우수'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상

무주군이 지난날 31일 부산시민공원 다습광장에서 열린 '2024 도시재창조 한마당 X 부산도시재생박람회(국토교통부·부산광역시 공동 개최)' 개막식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장관상(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 상은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무주군은 △사업비 집행 실적에 비롯한 △전담 조직의 사업관리 노력, △사업 목표 달성도, △부진 사업 개

선 노력 등의 사업추진 실적평가와 △성과관리체계 구축, △지역 참여도, △홍보 등 성과관리 부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양호"를 받았다.

황인후 무주군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고 등급을 받으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라며 "무주읍과 설천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운영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공모 선정

진안군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5년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모 사업 평가를 통해 폭염 등 기후위기를 겪는 취약계층 또는 지역에 적응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특히 군은 도내 전체 선정 사업비인 총 11억 3천만원 중 총사업비 5억 8천만원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이를 활용해 차열 페인트 도장 사업, 이동식 쉼터 설치사업, 고정식 쉼터 설치사업(2개소) 등 4개 사업에

총 5억8천만원(국비 2억9천만원, 군비 2억9천만원)을 투입해 추진할 예정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기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여름·겨울철 더욱 극한의 날씨로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여름철 무더위 전에 준공해 폭염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여성농업인 대상 동남아 음식 교육 진행

무주군이 여성농업인 전문 교육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오전·오후 각 20명)한다. 오는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매주 월요일(09:00~18:00)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무주반딧불 농산물을 활용해 세계인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을 개발·보급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신청 공고일 기준 무주군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여성농업인인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11월 6일까지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생활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교육은 농민이 집 3층 조리실에서 진행되며 '오른이야기'의 박은효, 한남순 강사가 카오팍무, 얌은센, 반미, 팻타이, 페보, 짜조, 푸팟퐁커리, 쪽집 등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요리 수업을 진행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생활지원팀 민선희 팀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지역 내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적응을 돕고 나아가 농촌여성들의 역량을 함께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교육을 기획하게 됐다"라며 "무주농산물을 활용하는 만큼 반딧불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기회, 상호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소방서,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무주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앞두고 11월 한 달 동안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한다고 지난날 31일 밝혔다.

올해로 77회째를 맞이하는 불조심 강조의 달은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화재 예방 캠페인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달이다.

이에 소방서는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 불조심 홍보 현수막 게시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개최 △소방차 퍼레이드 △Open-소방서 안전체험교실 △소방 활동사진 전시회 개최 등을 진행하여 군민이 화재 예방과 안전 문화에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36건 선정

진안군은 지난날 31일 군청 상 황실에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위원장 진안부군수)를 열고, 위원장 및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36건을 선정했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을 기록하는 제도이며, 진안군은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2024년 중점관리사업은 총 36건으로 선정 대상 사업은 10억 이상의 대규모 예산 23건, 5,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6건, 다수 군민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7건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등이며 최종 선정된 사업의 목록과 사업내역서는 진안군청 누리집 및 정보공개 포털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진안군은 '정책실명제 국민신청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의 관심이 큰 사업 등 신청이 들어온 사업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담당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